



지속가능한 한글의 가치

한재준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1. — 의사소통 체계 디자인, 한글

글자를 디자인한다고 하면, 기존의 글자를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거나 유용하게 변화를 주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560여 년 전, 한국의 옛 이름인 조선에서는 실제로 예전에 없던 새로운 글자가 디자인되었다. 더구나 이 글자는 오늘에 이르러 7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의사소통 수단이 되었고, 그 구실과 가치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글’이라는 이름의 이 글자가 더욱 놀라운 것은 디자인 의도와 원리, 활용 방법과 만든 시기까지를 한 권의 책에 세세히 남겼다는 점이다. 한글의 처음 이름이기도 한 이 책 <훈민정음>해례본은 언어학이나 문자학 분야에서는 널리 알려진 바 있지만, 최근에는 예술과 디자인 분야에서도 영감을 주는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디자인 매뉴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책의 내용과 한글의 실상을 비교해보면, 디자인이란 무엇이며 디자이너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산업화나 정보화 과정에서 남용된 기술과 지식의 폐해에 대해 다시 반성하게 되고, 현대디자인의 다양한 접근 방법¹⁾들이 상투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디자이너 세종 이도는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이치를 남다르게 꿰뚫어보았고, ‘차이’와 ‘소통’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으며, 사용자를 존중하는 ‘배려’와 ‘실용정신’을 디자인에 충실히 반영하였다. 디자인 동기와 발상이 독특하고, 통합적인 디자인 태도와 방법이 훌륭하다. 그 결과, 제자 체계와 원리의 확장성이 매우 높아 지속적으로 진화할 여지를 충분히 갖추었다. 이러한 한글은 한국어를 표기하는 한국 사람들만의 글자가 아니라, 세계 어느 곳 누구에게나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의사소통체계로서의 가능성과 가치를 지녔다.

2. — 위대한 디자이너, 세종 이도

조선의 4대 임금 세종 이도(1397~1450년)는 소리가 나고 들리는 이치를 분석하고 자연의 원리를 응용하여 독특한 체계의 글자를 탄생(1443년)시켰다. 그 시대에 한 나라의 왕이 백성을 위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사건이다. 더구나 그 글자가 오늘날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도 또한 신기하고 믿기 어려운 일이다. 도대체 그렇게 체계적이고 완벽에 가까운 글자를 만들어낸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세종 이도가 왕세자가 되기 이전부터 책을 가까이 했고, 높은 학식과 교양을 두루 갖추었다는 사실과,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성리학을 중시했던 교육 여건도 한 몫 했을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세종의 어진 성품과,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는 태도와 실천력에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배경이 백성(사용자)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고, 진정으로 쓸모있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 우주와 자연의 원리를 응용하게 한 것이다. 세종 이도와 그가 만든 한글을 보면 창작 동기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한 사람의 디자이너가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를 실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대 디자인 교육이 일궈야 할 인재육성의 방향과 교육체계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를 되짚게 한다.

3. — 해설서가 있는 계획된 글자

디자인 해설서라 할 수 있는 <훈민정음>해례본에는 디자인 철학과 원리, 활용 방법 등이 자세히 밝혀져 있다. 착상이 독특하고 과정이 치밀하여 560여 년 전의 내용이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디자인이 어떻게 존재해야하며 디자이너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명쾌히 말하고 있고, 한글이 크고 멋지게 디자인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한글의 특별한 가치와 그것을 창작과 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는 실마리로 소개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책에 있으며, 한글이 지속가능한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33장 66면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세종의 창제 의도와 목적, 각 자모에 대한 설명, 디자인 방향과 원리, 자모의 조합방식과 체계, 활용방법 등이 예시와 함께 다루어졌고, 마지막 부분에는 해례본 저술에 참여했던 대표자 정인지의 글과 나머지 학자들의 이름과 편찬시기까지 자세히 기록되었다. 어느 집안의 가보로 묻혀 있다가, 1940년에 발굴되면서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 때 부터 한글의 진정한 가치가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으며, 현재의 문체에 대한 개선과 보완 방향의 실마리도 찾게 되었다.

4. — 새로운 계통의 독창적인 글자

오늘날 세계 글자의 뿌리는 크게 세 갈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메르 설형문자, 이집트 상형문자, 중국의 갑골문자가 그것이다. 그러나 한글은 이 갈래들과는 전혀 다른 독립된 특성을 가졌다. 대부분의 다른 글자들은 구체적인 그림으로부터 출발해서 단순화·상징화·추상화·양식화·개념화되어왔다. 다시 말해서 그림문자(繪畫文字)·상형문자(象形文字)·표의문자(表意文字)·표음문자(表音文字) 등의 단계를 거쳐 온 것이다. 이에 비해 한글은 처음부터 소리글자(表音文字)의 성격으로 만들어졌으며,

소리를 초·중·종성 세 단위로 가장 잘게 쪼개어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구조²²⁾의 낱소리글자(音素文字) 형태를 가졌다. 더욱이 그 체계가 소리만이 아니라 의미까지를 아우르는, 곧 표음글자에 속하지만 표의성도 품고 있는, 인류사에 없던 독특한 체계를 보이고 있다.

5. — 우주원리를 반영한 보편적인 글자

한글은 민족이나 언어, 국가와 인종의 차별 없이 누구나가 손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졌다. 천지자연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완벽한 글자를 만들기 위하여 소리가 나고 들리는 이치를 찾아 사람의 조음 구조를 분석했고, 자연과 우주의 질서를 응용하여 소리에 담긴 정보와 의미를 상징화·시각화·체계화한 결과이다. 하늘·땅·사람을 상징적으로 시각화했고, 발성기관의 조음 구조와 형태를 음성학적으로 해석하여 체계를 세웠다. 이와 같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핵심 철학으로 삼은 근원적인 발상과 원리는 그 가치와 활용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자연의 원리를 적용한 엄밀한 법칙과 유연한 적용성은 어떠한 소리나 음성의 표기도 가능하게 하므로, 글자가 없는 소수 민족의 표기 수단으로 시도하거나, 국제 음성 기호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리와 형태간의 상호작용성이 뛰어나므로 음성을 글자로 변환시키는 디지털 체계의 환경에서는 더욱 원활한 소통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6. — 최소주의가 적용된 경제적인 글자

한글은 단순한 요소의 생성과 조합으로 끝없이 전개가 가능한 기하학적 체계로 만들어졌다. <훈민정음>해례의 제자해에 의하면, 홀소리글자는 하늘, 땅, 사람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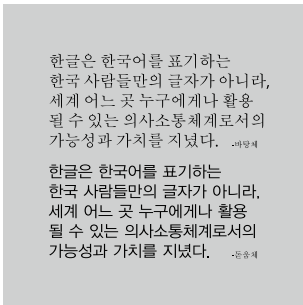


그림 1. — 널리 쓰이고 있는 현대의 한글 활자꼴



그림 2. — 원화 만원권 지폐에 그려진 세종 영정



그림 3. — <훈민정음>해례본의 예의편(例義篇) 부분, 세종 이도의 디자인 철학과 의도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으며, 한글 자모 28자의 조음 위치, 명칭, 음가를 한자음을 이용하여 예시하였다.



그림 4. — <훈민정음>해례본의 해례편(例義篇) 제자해(制字解) 부분그림. 집현전 학자들이 집필하였고, 한글 창제의 방법과 원리가 자세히 기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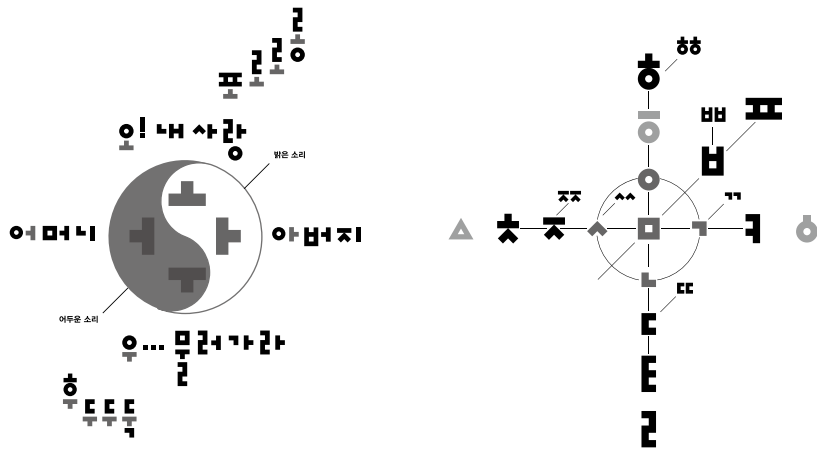


그림 5. — (왼쪽)홀소리글자의 표의성(表意性). 홀소리글자는 음양(陰陽)의 원리에 따라 체계화 되었으며, 소리, 형태, 의미의 변화체계가 일정하게 작동된다. ‘ㄱ’과 ‘ㄷ’는 밝거나 남성적이며, ‘ㄴ’과 ‘ㄹ’은 어둡거나 여성적인 의미를 품고 있다.

그림 6. — (오른쪽)오행(五行) 체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글 닿소리글자. 소리와 의미와 형태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시키고자한 실마리가 보인다.

상징적으로 표현한 ·, 一, | 3개를 기본자로 삼았고, 닿소리글자는 가장 순한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ㄴ, ㅁ, ㅇ 3개를 시초로 한 후, ㄱ 과 ㅅ을 추가하여 ㄱ, ㄴ, ㅁ, ㅅ, ㅇ 5개를 기본자로 정하였다. 나머지 자모는 이 8개의 기본자모에 가획과 대칭이라는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조형원리를 적용하여 모두 28개의 자모 단위를 만들었다. 이러한 자모 단위로 ‘전환이 무궁하고 간단하게’ 합자(合字) 전개하여 천지자연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와 같이 단순한 방식으로 무한에 가까운 형태를 만들어가는 체계는 최소의 변화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는 기술적 합리성의 경제원칙 개념에도 직결된다. 그래서 한글을 최소주의 글자이고, 경제적인 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7. — 산업화와 정보화에 유리한 과학적인 글자

한글은 소리 체계를 분석하여 그 소리를 일정한 규칙과 질서로 시각화한 글자이므로 그 발상이나 접근 방법 자체가 이미 과학적이다. 또한, 초성·중성·종성을 구분하는 삼분법의 특성으로 소리를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고, 말 뿌리의 구분도 수월하게 한다. 더구나 그 체계가 수학적이므로 자모의 출현순서가 일정하여 모든 글자는 닿소리글자+홀소리글자, 닿소리글자+홀소리글자+닿소리글자(받침)의 순서로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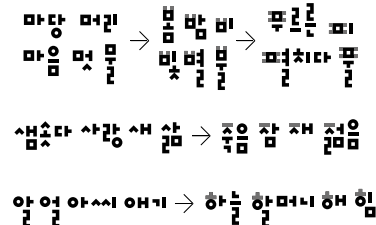


그림 7. — 닿소리글자의 표의적인 실마리. 글자 줄기의 체계적인 변화는 소리의 변화뿐만 아니라, 의미의 변화와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 가획 원리 적용 예. 같은 계열의 소리는 줄기를 더하는 형태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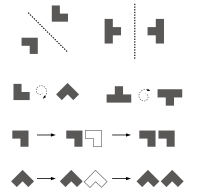


그림 10. — 대칭 원리 적용 예. 각각 선대칭, 방사대칭(회전), 이동대칭(반복)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그림 8. — 한글의 기본 형태소. 창제 때의 한글꼴을 분류·분석해 보면 한글의 바탕꼴이 위의 6가지 임을 알 수 있다.

향동배 회후뽐

그림 11. — 닿소리글자의 조합의 예. 가로로 나란히(並書) 또는 아래로 위 아래로 이어서(連書) 조합하는 원리가 적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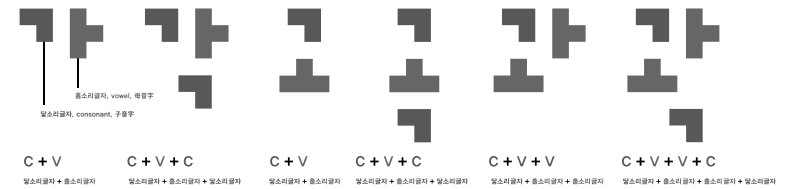


그림 12. — 닿소리글자와 홀소리글자의 기본 조합구조. 닿소리글자와 홀소리글자는 위의 6가지 기본 구조로 조합 구성(合字)된다.

한재준 외: 「곱고 바른 한글 활자꼴 개발의 필요성 연구」 연구보고서 — 국립국어연구원, 2007
 한재준: 탈네모틀 세벌식 한글 활자꼴의 핵심 가치와 의미 — 기초조형학연구. Vol.8. No.4. 서울: 한국기초조형학회, 2007
 한재준: 미래 한글을 생각함 — 제2회 한국어학회 국제학술대회, 『한글』, 94~99쪽, 한국어학회, 2008
 한재준: 한글은 글자다 — 세종대왕 탄신 611돌 기념 심포지엄, 『한글시각문화의 향방』,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2008

『訓民正音』(解例本)
 『訓民正音』(諺解本)

— 외국문헌 (저자 알파벳 순)

HAN, JAE-JOON: Changing Forms of Hangul Typeface: Past, Present and Future. Visual Humanities. Osaka University The 21st Century Coe Program. Group6. Interface Humanities Research Activities 2002*2003., 2004
 HAN, JAE-JOON: 'The Current State of Hangul Font Design', IDEA. Tokyo: Seibundo Shinkosha, 147-152pp., 2004
 HAN, JAE-JOON: 'THE HANGUL ALPHABET OF KOREA'. TYPO, Issue 31, Spring, 2008
 MAN, JOHN: Alpha Beta, John Wiley & Cons, Inc., 2000
 SAMPSON, GEOFFREY: Writing System, Stanford University, 1985

— 웹사이트

<http://www.icograda.org/feature/current/articles1181.htm>

초록

한글의 디자인 배경, 철학과 원리에는 다양한 가치와 실마리들이 담겨 있고, 이미 언어학이나 문자학 관점의 가치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글이 소리와 의미를 아우르는 매우 독특한 표기체계 디자인이라는 사실과 그 속에 담긴 또 다른 가치들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조차 인식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따라서 그러한 가치와 그 속에 담긴 다양한 실마리들이 온전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이러한 현실의 환기를 위하여 한글의 창제 배경과 원리, 한글의 특성과 현황에 대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고, 한글의 지속가능한 여러 가치들을 디자인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드러내었다. 또한, 이러한 가치가 지속성을 가지려면 먼저 사용자들 스스로가 현재의 한글에 대해 철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며,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특히 디자인 해설서인 <훈민정음>해례본의 내용을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널리 알려야 함을 시사하였고, 한글이 한국어를 표기하는 한국의 글자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의사소통 체계로서의 가능성을 가졌음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e Sustainable value of Hangeul

by Han Jae-joon

The background of design, philosophy and principles of Hangeul contain various values and clues. Although the value of linguistics or graphonomy has been widely recognized, even users are insensitive to the fact that Hangeul is a very unique writing design system embracing sound and meaning. Lots of things have to be extracted from the value of Hangeul.

This study specifically described the background and principles in creating Hangeul and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Hangeul to remind this actual situation, and emphasized the various sustainable values of Hangeul. Moreover, if these values have to be sustainable, designers and users should have problem awareness on current Hangeul. And the contents of <Hunminjeongeum> manuscript should be widely published in easy type for more people to be able to understand them.

Also, this study emphasized that Hangeul is the character which can be possibly used as one communication system for everyone in the world as well as characters to display Korean.

키워드

지속가능한 디자인, 한글, 훈민정음, 세종 이도
 Sustainable design, Hangeul, Hunminjeongeum, Sejong Yi Do